

# 전주매일

▶ 매일 INDEX



3면 문 대통령 "지방류 우려 매우 커"

2021년 4월 15일 목요일 (음 3월 4일) 제2758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 (063)288-9700

비수술적 척추관절 투약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 미세먼지 제로화 기업들이 나섰다

### 전북도, 전주페이퍼·OCI·일진 머티리얼즈 등과 협약 협약 참여 도내 34개 기업들, 2024년까지 612억원 투자

미세먼지 없는 맑은 하늘을 만들기 위해 도내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나섰다. 전북도는 도내 34개 기업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대기오염물질 자발적 감축 협약을 체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협약에는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먼지, 질소산화물, 황산화물)을 연간 10톤이상 배출하는 도내 기업 중 34개 기업이 참여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최근 도내 코로나 19 상황을 고려해 전주, 군산, 익산, 완주 산단별 1개 기업이 대표로 참가해 협약을 체결했다. 송하진 도지사와 전주페이퍼(주) 김경식 공장장, OCI(주) 한철 공장장, 일진 머티리얼즈(주) 송기덕 공장장, 현대자동차(주) 문정훈 공장장이 참여해 참여 의지를 확고히 했다. 이번 협약에 참여한 34개 기업은 미

세먼지가 고농도로 발생하는 12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인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 최소화 에 뜻을 모았다. 참여 기업들은 오는 2024년까지 기업 별로 대기오염물질 배출공정 개선, 방지시설 추가설치 및 운영개선 등에 612억 원을 투자할 예정이다. 도는 협약사항을 적극 이행할 수 있도록 참여기업에 대해 자가측정 주기 조정, 우수기업 표창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송하진 도지사는 "미세먼지 다량 배출기업과 자발적 감축 협약을 통해 미세먼지 저감 정책을 선도해 나가겠다"면서 "이번 협약을 계기로 더 많은 기업이 전북도의 미세먼지 저감 정책에 동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유호상 기자



전북도는 도내 34개 기업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대기오염물질 자발적 감축 협약을 체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사진은 송하진 도지사를 포함한 협약식 참석자들이 피켓을 들고 있는 모습이다.

## “인권친화적 공공시설 기반 다져나갈 것”

### 전북도, 2020 도민인권실태조사 완료

#### 주민센터 다수 노후화 시설 많아 화장실·임산부 휴게실 등 개선용 필요 정책 “청사 개보수비 지원”

전북도는 도내 14개 시·군 공공청사 등에 대한 인권 친화도 제고를 목표로, 도민과 가장 밀접한 공공시설인 주민센터의 인권 친화적 시설 설치 여부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도민인권실태조사'를 완료했다고 14일 밝혔다. 전북연구원이 수행한 이번 실태조사 용역은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도내 243개 읍면동 주민센터를 대상으로 시행됐다. 도는 이번 용역을 통해 아직 명확한 학술적 정의가 제시되지 않은 '전라북도 인권친화시설'의 개념을 이동약자(노인, 장애인, 임산부 등)의 특수성을 고려하되 모든 시민이 자유롭게 접근하고 이용하며 이동할 수 있는 편리하고 안전한 시설로 정의했다. 이어, 각 공공청사시설에 대한 인권친화도를 측정하기 위한 지표를 건물진입부터 시설물의 이동과 이용에 이

르는 전 과정에 걸친 12개 분야 53개로 설정했다. 각 지표는 장애인과 노인 등 이동약자를 대상으로 가장 정량화된 무장애 생활환경 지표, 모든 도민의 보편적인 이용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유니버설 디자인, 공공시설물의 공익적 가치를 결합한 공공디자인의 지표를 활용해 구성됐다. 지표를 토대로 공무원 자체점검을 통한 전수조사와 조사원을 활용한 현장 조사를, 그리고 읍면동 공무원 및 시설 이용주민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가 병행됐다. 종합적인 평가 결과, 대다수 주민센터가 인권 친화적 관점이 도입되기 전 건축되고 노후화된 시설이 많은 만큼 여러 부분에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보행 접근로, 출입문 지표의 적합도는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화장실, 임산부 휴게실, 기타 시설 부분은 낮게 나타나 개선이 시급하다고 제시됐다. 또한, 설문조사를 통해 나타난 공공청사에 대한 인권 친화적 관점은 공무원과 지역주민이 다소 다른 시각을 보

였으나, 편의시설, 주차공간, 휴게시설, 장애인 이용이 불편하다는 답변은 상당수 공통적으로 나타났다. 향후, 가장 필요한 정책으로는 공무원과 지역주민 모두 '청사 개보수 비용 지원'을 꼽았고 '지역주민의 관심 및 감독이 필요하다'는 답변이 뒤를 이었다. 이번 용역 결과는 동일 시·군내의 주민센터라도 불편한 시설물에 대한 결과가 각각 다르고, 도내 전체 읍면동 주민센터 각각의 부적합 시설물에 대해서 상세하게 제시된 만큼, 인권 친화적 시설로의 개선에 구체성을 더했다는 면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열경형 도 인권담당관은 "실태조사 결과를 각 시·군과 공유해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의 개·보수 또는 신축 시 개선사항 반영 등 부적합시설이 인권친화시설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인권 친화적 공공행정기반을 한층 더 단단히 해 인권도시 전북을 구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에 시행된 도민인권실태조사는 '도민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제9조에 근거해 2년 주기로 실시된다. /유호상 기자

### 새만금개발공사, 오늘부터 시민참여혁신단 공개 모집

새만금개발공사(사장 강팔문, 이하 '공사')는 15일부터 28일까지 제3기 시민참여혁신단을 공개 모집한다고 14일 밝혔다. 오는 5월부터 올해 말까지 활동하는 제3기 시민참여혁신단은 공사의 주요 성과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경영전략, 공공혁신, 사회적가치 실현 등 공사의 현안에 의견을 제시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실제로 공사는 제1기 및 제2기 시민참여혁신단의 의견을 반영해, 지난 3월 도내 5개 공공기관과 함께 익산시에 전국 최초로 마을지치연공사업에 착수했으며, 올해 하반기에는 고창군에 청년합성센터 건립사업을 공동 추진할 계획이다. 제3기 시민참여혁신단은 공사에 관심있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방법은 공사 홈페이지(www.sdko.or.kr) 내 해당 공지사항에 첨부된 신청서를 작성해 오는 28일까지 담당자 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강팔문 사장은 "시민참여혁신단 덕분에 우리 공사가 지역상생의 사회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시민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국민에게 사랑받는 공공기업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 “日정부,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 취소해야”

송 지사, 입장 밝혀... “정부·17개 시·도와 적극 대응”

송하진 전북도지사가 지난 13일 일본 정부가 발표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에 대해 깊은 유감과 우려를 표명하며, "전북도의 입장 및 대응"을 14일 발표했다. 이날 송하진 지사는 일본 정부는 일방적인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을 즉각 취소하고, 우리나라 등 인접국과 다시 협의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오염수 처리 과정 등 전반적인 절차와 안전성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국제사회의 객관적 검증에 수용하라고 거듭 주장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는 국민의 안전과 해양환경 피해 방지를 위

한 구체적인 방안을 강구해 실행 하라고 요구했다. 송 지사는 아울러, 전북도는 도민의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한다는 원칙을 갖고, 수입식품에 대한 방사능 검역·수입 수산물에 대한 유통 이력 관리와 원산지 단속 강화, 해양환경 오염 우려와 수산물 소비위축으로 어려움을 겪을 어업인 지원 등의 조치를 취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이번 사태와 관련해 전북도는 중앙정부 및 17개 시·도와 공조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유호상 기자

## 코로나19 이겨낼 수 있습니다

전주매일이 앞장서겠습니다

전주매일 캠페인

**손씻기**

**마스크착용**

**건강한 시민이 할 수 있는 감염병 예방법 두 가지**

**일반시민이라면?**

1. 흐르는 물에 비누로 손씻기
2. 기침할 때 입과 코 가리기
3. 씻지 않은 손으로 눈과 코, 입 만지지 않기
4. 의료기관 방문할 땐 마스크 착용
5. 사람 많은 곳 방문 자제
6. 발열과 호흡기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 피하기

**증상이 있으시다면?**

1. 등교, 출근 하지마시고 외출 자제
2. 집에서 충분한 휴식과 함께 3~4일 경과 관찰
3. 38도 이상 고열이 지속되거나 증상이 심해지면 1339로 문의, 또는 선별진료소 우선 방문
4. 의료기관 방문할 땐 자기 차량 이용하고 마스크 착용
5. 진료의료진에게 호흡기 증상자와 접촉 여부 알림

자료: 질병관리청